



## 대학에서의 향가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 원왕생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Education of Old Korean Folk Songs-Hyangga taught by University

---

저자 (Authors) 정흥모 Jeong Heungmo

출처 (Source) [국어문학 39](#), 2004.1, 330-351(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13006>

APA Style 정흥모 (2004). 대학에서의 향가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국어문학, 39, 330-3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7 12:5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대학에서의 향가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 「원왕생가」를 중심으로.

정 홍 모\*

## I. 문제제기

이 글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향가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향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전문학은 ‘他者の 문학’이다. 고전문학은 외국문학과는 달리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이며 민족사의 단일성·연속성을 강조하는 당위적 측면에서 그 ‘他者性’의 거리감이 희석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여진 삶과 문화의 차별성의 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sup>1)</sup>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 고전문학은 외국문학보다도 오히려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문의 ‘실용성’만을 교육의 척도인 양 여기는 요즘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고전문학에 흥미를 가지는 학생은 극히 드물어 가히 고전문학 교육의 위기상황이라 할 만하다. 특히 향가의 경우는 그 시간적 거리에서 오는 생소함과 배경 자료의 소략함, 현대시와 다른 문학적 형상화의 방식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이

---

\* 대진대

이 논문은 대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1) ‘他者性’의 개념은 김홍규의 논의에서 빌어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대학의 국문학교육』, 국어국문학회, 1993, pp.177-183 참조.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향가 작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 이 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작품 자체(와 그것의 역사성)를 이해시키고 나아가 현재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자아 성장 및 세계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당면한 고전문학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향가의 경우는 그 존재방식 자체가 독특하여 작품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개의 통로를 통한 다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비록 짧은 형식이지만 작품의 문학적 형상화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어 작품의 창작 수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배경설화를 검토해야 하며, 제2의 창작자(혹은 해석자)라 할 수 있는 일연과 그 시대의 관점에 대해 고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개별 작품에 따라 강조해야 할 부분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나 위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런데 실제 강의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위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은 아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참을성 없는 학습자들을 상대로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장황한 배경 지식을 나열한다거나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나 논의될만한 깊이 있는 고증을 시도하는 순간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류는 끊어지고 그 강의는 실패하게 된다. 즉 작품과 그 주변에 대한 원론적(연구자의 입장에서) 접근은 실패하기 십상이므로,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점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향가 교육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25수의 향가는 각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가 아닌 젊은 학생들은 향가 25수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강의 설계를 할 때 교수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데 필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향가와 그 배경설화가 현대를 사는 젊은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자아 성장이나 세계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한 내용을 현실사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제망매가」처럼 뛰어난 작품성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한 5,6수의 작품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중요한 사항들만 간추려 이해시킨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이 장황한 배경지식의 나열이나 향찰 해독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종류의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작품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학습자의 현재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왕생가」의 학습 상황을 예로 들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모색해보기로 한다.<sup>2)</sup>

## II. 「원왕생가」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접근

문학 이해의 기본이 텍스트에 대한 접근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먼저 『삼국유사』에 실린 「원왕생가」와 그 배경설화를 같이 읽는 것으로 학습을 시작한다. 「원왕생가」가 실려있는 『삼국유사』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 광덕과 엄장

문무왕 때다.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라는 두 사문(沙門)이 있었다. 둘은 우정이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 그들은 먼저 극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서로 꼭 알리기로 하자고 늘 다짐했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은거하여 신 삼는 것을 생업으로

2)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과목으로 <향가·여요의 이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다.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그리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이 고요히 저물어 갈 무렵 엄장은 창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이렇게 알렸다.

“나는 벌써 서방으로 가네. 그대는 평안히 머물다 속히 나를 따라 오도록 하게.”

엄장은 문을 밀고 나가 살펴보았다. 멀리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광명이 땅에 뻗어 있었다.

이튿날 엄장은 광덕의 거처로 찾아가 보았다. 과연 광덕은 죽어 있었다. 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 일을 마치고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말했다.

“남편은 이미 갔으니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어떻소?”

광덕의 아내는 좋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엄장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광덕의 아내에게 머물렀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즈음 엄장이 광덕의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하자 광덕의 아내는 부끄러움과 혐오가 섞인 웃음을 띠며 말했다.

“스님이 극락을 구하는 것은 물고기를 구한다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격이라 할 만하오.”

엄장은 동거를 허락했던 광덕 아내의 이 뜻밖의 태도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거늘 넌들 안 될 게 뭐 있소?”

광덕의 아내는 차근히 말해주었다.

“그분과 나는 십여 년을 동거했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잔 적이 없소. 하물며 더러운 짓을 범했을라고요? 그분은 매일 밤 몸을 단정히 하고 정좌해서는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名號)를 염송하기도 하고 또는 십육관(十六觀)을 짓기도 했으며 관(觀)이 이미 원숙해진 뒤 밝은 달이 창에 들어오면 그 달빛에 올라 때때로 그 위에서 가부좌를 하기도 했소. 정성을 다하기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정도에 가지 않으려 한들 어디로 가겠소? 대개 천리를 가려는 자는 그 첫걸음으로 재어볼 수 있나니 이제 스님의 관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서방으로 간다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물러나왔다, 그리고 곧 원효법사의 거처로 나아가 득도의 요체를 간절히 요구했다.

원효법사는 정관법(淨觀法)을 지어 지도했다. 엄장은 이에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누우쳐 자책하며 일념으로 관을 닦았다. 그리하여 서방으로 갔다. 정관법은 「원효대사 본전」과 「해동속전」 속에 있다.

광덕의 아내는 바로 분황사의 노비였는데 관음보살의 19응신 가운데 하나였다.

광덕은 일찍이 이와 같은 노래를 읊었다.

달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불 전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尊을 우러러  
 두 손을 모두와  
 願往生 願往生  
 그럴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아오 이 몸 남겨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sup>3)</sup>

「원왕생가」는 내용도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데다가 중간 중간에 전문적인 불교 용어가 나와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는 내용 이해가 쉽지 않으며 작품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일차적인 내용 이해를 위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작품과 배경설화를 읽고 나서 먼저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게 한다. <십육 관>이나 <아미타불>, <정관법>, <19응신>, <사십팔대원> 등

3) 『삼국유사』 권제7, 「광덕 엄장」.  
이동환의 번역(『삼국유사』, 장락, 1994)을 기초로 해서 필자가 한두 군데 첨삭했다.

불교 용어의 개념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 간략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듣기 쉽게 처리한다. 이를테면 ‘십육관’에 대한 질문에 『佛說觀無量壽經』에 나오는 16종의 관상을 모두 소개하며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처가 제시한, 마음을 통일하여 정토를 觀想하는 16종의 방법’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이다.<sup>4)</sup>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야기 전개상 의심스러운 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다. “광덕은 스님[사문]이었는데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까?”, “광덕과 엄장은 친구였는데 광덕이 죽자 엄장이 그의 아내와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돌려주어 자유롭게 대답해보게 한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웃는 과정에서 낯선 텍스트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지게 되므로 엉뚱한 대답이 나와도 제지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대답을 듣느라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건 좋지 않지만, 웃음을 유발하는 대답들을 통하여 텍스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在家沙門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부부이지만 ‘斷欲去愛’하며 ‘居塵不染’하는 수도자의 예를 들어 주며<sup>5)</sup>, 형식보다 내용[마음]이 중요함을 설명해준다. 학생들의 호응 정도를 봐서 시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보살도를 이룬 유마 거사나 만해 선사의 예를 들어줘도 좋다. 다만 이런 예들은 이 작품의 전개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학습이 끝난 뒤 시간이 남을 때 보

4) 「원왕생가」에 나오는 불교 용어에 대한 정리는 황폐강, 「〈원왕생가〉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김열규·신동욱 편, 새문사, 1982)가 참고가 된다.

5) 황폐강, 위의 논문에 畢鉢羅耶童子와 跋陀羅女の 예가 소개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pp.87-88 참조.

충실명으로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 먼저 결혼 풍속(혹은 제도)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학습 분위기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다양한 결혼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줘도 좋고, 최소한 동성근친혼 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존재했음을 이해시킨다. 사촌 사이의 혼인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신라 사회를 골품제의 예로 설명하고 고려 왕조 초기의 근친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어서 형수혼, 처자매혼 등을 소개하고 형수와 조카들의 생활을 동생이 책임지는 형수혼 제도가 여성과 아동들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전대 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풍습일 수도 있음을 이해시킨다.<sup>6)</sup> 일련의 설명을 통해 다양한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제도·윤리·이데올로기 등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역사 발전 단계에 호응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독해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다소 비현실적이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의 열개가 파악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와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할 차례다. 이 과정은 교수자의 일정한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질문과 학습자의 호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상세한 과정은 생략한다. 「원왕생가」 텍스트의 주제는 ‘미타신앙이 (신라) 대중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사건을 통해 제시한 것’이며, 광덕과 엄장의 ‘정성어린 신앙생활과 修道의 피나는 과정’, ‘刻苦의 자기수행’을 뚜렷이 밝히는 것이 이 텍스트의 실질적 주제라는 박노준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sup>7)</sup> 그런데 「원왕생가」 텍스트의

6) 혼인제도에 관한 부분은 주장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pp.224-237 참조. 고려 전기 왕실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청년사, 1997) pp.28-39 참조. 전문적인 연구서도 있으나 학부 수준에서 이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7)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p.56 참조.

전체가 아닌 「원왕생가」라는 향가 작품 자체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작품의 핵심 단어는 ‘願往生’으로 그 뜻은 ‘往生極樂을 원합니다’이다. 따라서 「원왕생가」는 ‘괴로운 현실을 탈피하여 (죽어서) 서방 극락정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가 이 작품의 주제인 것이다. 논의가 여기에 이르면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의 소요가 일어난다. “부지런히 도를 닦아 극락세상에 태어나기를 소망한다”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수긍을 하지만 “빨리 죽고 싶습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이다. 전자와 후자가 완전히 동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의 삶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약간의 충격을 주어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려는 의도이다.

### Ⅲ. 「원왕생가」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접근

이제 「원왕생가」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는 이루어졌다. 일차적인 이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텍스트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일차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맥락, 그것을 기록한 일연의 의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작업을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라 이름지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자.

광택과 엄장은 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습니다”를 외쳤으며, 일연은 왜 이런 기사를 『삼국유사』에 실었을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라시대의 불교사상 특히, 미타신앙의 형성과 정착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과 그 시대를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앞에서 “「원왕생가」의 주제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소의 지루함을 각오하고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阿彌陀信仰은 삼국시대 말기 정복전쟁의 와중에서 신라불교에 스며들었던 호전적인 성향(화랑도와 호국불교의 결합)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이러한 ‘지배층의 호전적 잔인성’에 대해 ‘자비를 열망하는 기층민들의 요구’에 호응한 원효를 중심으로 한 ‘미타계 승려’들의 노력으로 신라 中代에 활발하게 정착되었으며, 신라 中代의 王權이 안정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의상의 화엄적 사상체계 속에 흡수 변질되었다고 한다.<sup>8)</sup> 또한 신라 중대의 정토사상 및 아미타신앙은 ‘국왕으로부터 노비에 이르는 모든 계층에 보급되어 있었’으며, 비록 아미타신앙의 본질이 내세적 성향이 강하지만 신라 중대에는 일정하게 현실지향적 성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sup>9)</sup> 그러나 이 강의에서 아미타신앙의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원왕생가」 텍스트에 등장하는 광덕과 엄장의 신앙생활, 그리고 엄장에게 <정관법>을 지어 지도한 원효와 관련된 부분을 연결하여 아미타신앙의 대중적 측면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먼저 학생들에게 「원왕생가」 텍스트에 갑자기 원효가 등장한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삼국유사』의 「元曉不羈」 기사를 중심으로 원효의 일생을 소개한다.

원효가 계율을 어겨 설총을 낳은 후에는 속인의 복색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小姓居士라 불렀다. 우연히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형상이 기이함을 보고는 그 모양을 본따서 道具를 만들고 ... ‘無尋’라 이름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언제나 이것을 들고 千村萬落을 노래하고 춤을 추며 교화하여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가난뱅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다같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

8) 이에 대해서는 불교사학회 편, 『신라 미타정토사상 연구』(민족사, 1988)에 수록된 김재경의 논문 「신라 미타신앙의 성립과 그 배경」을 참고했다.

9) 이 부분은 위의 책에 수록된 김영미의 논문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참조.

불을 할 수 있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강조는 필자)<sup>10)</sup>

원효의 일생은 그 파격과 무애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소재이다. 원효가 보급한 정토신앙·아미타신앙의 실례가 위 인용문 강조한 부분에 잘 드러나 있는바, 우주의 현상과 본체를 설명하는 사변적인 화엄사상은 지적으로 미성숙한 서민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까닭에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實踐行으로서 보급된 것이 아미타신앙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광덕은 신을 삼는 것을 생업으로 했으며 업장은 화전을 일구며 살았으므로, 이들이 당시의 하층 서민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하층 서민의 수도생활에 대한 다른 사례로 「郁面婢念佛西昇」 기사를 소개한다.

경덕왕 때에 康州의 신도 수십 인이 서방정도에 가는 것을 구하여 미타사를 세우고 萬日 修道를 하기로 맹세했다. 이 때 阿干 貴珍의 계집종 郁面이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 복판에 서서 염불을 했는데, 주인이 그가 제 직분을 모르는 것을 미워하여 매일 곡식 두 섬을 하루저녁에 다 쪼으라 명했다. 육면은 초저녁에 이것을 다 쪼어버리고 절 마당에 와서 쉬지 않고 염불했다. 그는 절 마당 좌우에 긴 말뚝을 세워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 위에 합장을 하고 양쪽으로 흔들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염불을 했다.

이때 하늘에서 “육면 남자는 불당에 들어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절의 대중들이 이 말을 듣고 계집종을 불당으로 불러 기도에 정진케 하였다. 얼마 안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으로부터 들려오면서 육면이 대들보를 뚫고 솟아올라 서쪽 교외로 나가 본래의 몸을 버리고 부처님 몸으로 변해 나타났다. 그가 연화대에 앉아 대광명을 내뿜으며 천천히 떠나가니 음악 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않았다.<sup>11)</sup>

10)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元曉不羈」 부분.

11) 『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제7 「육면비염불서승」 부분 요약.

이 이야기는 흥미와 충격을 유발한다. 주인이 계집종의 분수 모름을 미워하여 하루에 곡식 두 섬을 찢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으며,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노끈을 꿰어서 양쪽으로 흔들며 기도했다는 대목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옥면은 왜 자신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기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으며, 광덕은 왜 아름다운 부인도 멀리하고 밤마다 앉아서 아미타불을 염송했을까? 또 일연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삼국유사』에 기록해 놓았을까? 논의가 이 대목에 이르르면 옥면 이야기의 충격에 학생들의 주의가 저절로 집중된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의 의식은 ‘불국도 사상’, ‘동족사의 자주성과 그 문화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관념’, ‘강렬한 서민적 생활의식’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한다.<sup>12)</sup>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한두 개의 예를 들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원왕생가」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세 번째 항목에 집중한다. 일연이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전통적 공동체적 생활의식의 변형된 표현’이라 한다. 예컨대 “『삼국유사』에는 下婢로부터 왕비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관한 설화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남존여비의 유교적 질서관이 고정되기 이전의, 인간생활의 어떤 정신적인 원형을 제시한 것”<sup>13)</sup>이라는 해석이다. 즉 일연은 마음속으로 귀족과 서민 등 모든 구성원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엄격하게 계급이 구분되어 있어서, 신라 시대에는 신앙생활조차도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철학적 사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불교는 서민 대중에게 애초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며, 아간 귀진과 계집종 옥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층민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

12) 김열규 신동욱 편,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 새문사, 1982에 실린 김태영의 논문 「일연의 생애와 사상」이 이 부분의 논의에 도움이 된다.

13) 위의 책, pp.Ⅲ-6 ~Ⅲ-13 참조.

해 하층민들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려는 움직임이 원효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정토신앙·아미타신앙의 보급이었다. 광덕과 엄장 같은 하층민이, 노비의 신분을 지닌 계집종 옥면이 지극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서방정토에 갔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대중적 불교 신앙이 신라시대에 정착하는 과정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광덕과 옥면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생활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고 나아가 현실의 삶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옥면이 손바닥을 뚫어 노끈을 꿰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이다. 광덕과 옥면은 왜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그런 극단적인 수행을 해야 했을까? 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했을까?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하층민들의 삶의 신산함과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광덕과 옥면의 이런 행위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연과 그의 시대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일연의 생애는 대부분이 몽고의 침략과 지배기에 걸쳐있다. 『삼국유사』도 원의 지배기인 충렬왕 때 쓰여진 것이다. 일연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백성의 삶이 유린되는 전란의 한 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sup>14)</sup> 수십 년에 걸쳐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되는 전란의 참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는 부류는 역시 힘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하층민들이다. 이들은 외적에 의한 살육과 지배에 따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지배층의 무제한적 수탈로부터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한의 고난에 처한 하층민들에게 연민을 느낀 일연은 말한다.

14) 일연의 일생에 관해서는 김태영, 앞의 논문 참조.

“여러분들의 기막힌 삶에 저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회의 모순을 일거에 혁파하여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삶의 질곡을 깨뜨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하층 백성으로 태어나 절망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열심히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내세에는 고통이 없는 극락정토에 태어나십시오. 신라 때의 쥘신장수 광덕이나 계집종 옥면을 보십시오. 그런 천한 사람들도 정성을 다하여 끝내는 왕생극락하지 않았습니까? 슬픈 세상이지만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현실을 사는 몽고침략 지배기의 하층민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전해주는 것, 광덕과 옥면의 이야기를 통해 일연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삼국유사』는 일연에게 과거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현재진행형이기도 한 것이다. 「원왕생가」 텍스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연과 그의 시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써 「원왕생가」 텍스트를 통해 신라사회의 하층서민들이 어떻게 불교 신앙생활을 했는가, 원효 등이 보급한 정토신앙 아미타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일연은 왜 이런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했으며 그것의 당대적 의미(일연이 살았던 시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수업이 여기까지 진행되면 학생들은 약간 불만 섞인 표정이 된다. “(일연이)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내세의 극락정토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현실도피가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이다. 지금까지 「원왕생가」 텍스트의 내용과 역사성을 이해하고, 일연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일연의 이런 태도는 현실도피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습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과제의 해결만 남았다. 과제 해결을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준비해 간 시 한 수를 나눠주고 학생들과 같이 읽는다.

臨終

님이여. 나는 서방정도에 가지 않으렵니다.  
죽어도 죽어도 이 나라에 있으렵니다.  
죽어서 몸이야 흙이 되건만  
물과 바람이 되건만  
그것으로 이 나라의 바람이 되건만  
내 뉘이야 흥흥한 귀신이 되어  
이 나라 강산에 있으렵니다.  
그동안 몇 천년을 떠돌았으나  
죽어서는 이 나라가 온통 삶입니다.  
영산강 기슭에도 놀매 갯강이에도 떠돌고  
갈 수 없던 대동강 모란봉 위에도 떠돌면서  
새가 울면 나도 울어서  
이 나라의 눈물이 되고  
깊은 밤 술이 되어  
모든 한숨을 위하게 하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날 때는  
이 나라를 떠돌이하려고 태어났으며  
다른 것들 섬기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의 슬픔 천으로 만으로 쪼개어져 여러 슬픔이니  
즈믄 달빛으로 잠자는 모습으로  
나는 서방정도에 가지 않으렵니다.  
죽어도 죽어도  
이 나라의 그믐밤 귀신이 되렵니다.  
물 열고 모진 바람 불어도  
함께 얼음 밑의 물이 되고  
함께 바람의 아픔으로 바람소리가 되렵니다.  
님이여. 어찌타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이 나라의 흙과 풀  
황토 언덕의 잔 소나무들도

몇 천년의 역대로 죽은 할아버지들입니다.  
 죽어도 죽어도 함께 있으렵니다.  
 곳은 비 한 방울로  
 이 나라의 날갯이 풀 포기 기르렵니다.  
 님이여. 나는 죽어서 서방정토에 가지 않으렵니다.  
 거기에 가다니, 거기에 가다니,  
 왜 그런 서방정토에 가겠습니까.  
 죽어도 이 나라의 귀신이 되렵니다.<sup>15)</sup>

「원왕생가」의 모티프를 차용해서 지은 이 시가 지향하는 세계는 향가 「원왕생가」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시를 두세 번 읽힌 다음에 누구의 작품으로 추측되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한용운이다. 불교 용어와 ‘-디니다’ 투의 어법, 그리고 현실 참여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갈 수 없던 대동강 모란봉 위에도 떠들면서”라는 구절은 분단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이 작품은 해방 이후에 쓰여진 시임을 설명하고, 작자는 高銀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고은의 현실 참여적 시와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한 인생역정을 소개하고 작품을 설명한다.

반복되는 ‘서방정토에 가지 않’겠다는 표현과 ‘이 나라를 떠돌이하’겠다는 표현은 작자의 강한 현실 참여적 지향을 보여준다. “영산강 기슭에도 놀매 갱쟁이에도 떠들고/갈 수 없던 대동강 모란봉 위에도 떠들면서”라는 구절은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시인의 의지의 표현이다. 영산강 기슭이나 논산 강경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이다. 쌀이 주산물이었던 전통 사회에서 수탈과 핍박을 가장 많이 당한 계층은 역설적이게도 그 주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었다. 대동강 모란봉은 민족 분단 모순의 상징으로 쓴 것이다. 작자는 혼자만의 평안을 위해 서방정토에 가지는 않을 것이며, 핍박받는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도 바치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현실

15) 고은, 『入山』, 민음사, 1977, pp.28-29.

참여형 지식인의 한 극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연의 행위가 일종의 현실 도피가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일연은 전란의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전란의 한복판에 뛰어들지는 않았고, 한 걸음 비껴 서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말한 종교적 지식인이다. 반면에 고은은 모순과 불의의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온 몸을 던져 민중들과 함께 한 실천적 지식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지식인으로서 일연은 현실을 도피했고 고은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일연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눈을 돌려, 우리 고전소설에 ‘남용된다’고 하는 우연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연적인 장치에 의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데, 이런 우연적인 장치들이 자주 사용되는 데에는 어떤 심리와 세계관적 배경이 있을까?

‘악의 힘이 창궐하는 현실’과 ‘선의 힘이 이 세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당위’ 사이의 극심한 분열이 그 핵심이다. 어떤 초자연적 우연적 요소의 개입도 없다면 주인공은 죽고, 그 가문은 완전히 파괴되며, 세상은 음험한 세력들의 것으로 전락한다. 현실의 경험적 논리로 보면 주인공인 갓난아기가 소년으로 죽는 것이 필연이지만, 도덕적 당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처럼 ‘현실의 필연’과 ‘도덕적 당위’가 찢겨진 세계관 위에서 후자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소설적 장치가 곧 우연성인 것이다.<sup>16)</sup>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현대의 소설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대적 상황 혹은 고전소설적 질서 안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연은 승려였다. 승려인 일연이 생각하는 ‘이상적 당위적 세계’와 ‘원나라 지배하의 고려의 현실’은 고전소설에 나오는 ‘도덕적 당

16) 김홍규, 앞의 논문, p.185.

위'와 '현실의 필연' 만큼이나 거리가 있다.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승려이자 지식인인 일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불의한 현실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고려의 독립을 외치다 원나라 병사의 한칼에 죽는 것일까? 『삼국유사』를 저술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 일연으로서의 거의 최선의 선택이자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연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어서 종교적 지식인의 삶과 실천적 지식인의 삶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 학습 내용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 중의 하나인 까닭에, 종교인은 현실의 모순과 불의에 정면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것에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의 희망을 말하게 된다. 극심한 수탈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이끌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녹두장군 전봉준이 실천적 지식인이라면,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망하고 좌절하는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려[解冤] 한 강증산은 종교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두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것이며, 개인적 성향과 여건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만약 우리 삶이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면 지식인인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일연 식의 삶을 살 것인가? 고은 식의 삶을 살 것인가?”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신라사회에서 광덕과 육면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일연이 『삼국유사』에 광덕과 육면 같은 하층민의 이야기를 수록한 의도와 그것의 의미를 정리하고, 종교적 지식인과 실천적 지식인이 세상을 사는 방식을

이해할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역사성과 편찬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모두 다 훌륭한 선택이다. 각자의 성향과 자질을 잘 파악하여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발언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한다.

#### IV. 맺음말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이 시대 대학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이것은 국문학의 위기와 직결되며 고전문학 교육으로 초점을 좁혀 보면 이미 위기를 지나 붕괴상태에 이르고 있는 느낌이다.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실용적 풍조이다. 여기에 대학 교육의 대중화도 일조를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어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평균적 지적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지적 능력과 탐구심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사회 구조, 생활 양식, 가치관, 문학적 관습 등이 현저하게 다른 시대의 문학에, 현대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생소한 어휘들로 이루어진 고전문학 작품에 흥미를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면한 국문학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몇몇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와 명칭을 미디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언어문화학과, 응용한국어문학과 등으로 변경하고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에 중점을 두는 교과과정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sup>17)</sup>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으로 조선시대의 대하소설을 새롭게 정리하여 시대극이나 판타지물 스타일의 영화, 애니메

17) 권순궁, 「지방대학 ‘국어국문학과’의 개편과 전망」,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06. 참조.

이선, 게임, 캐릭터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sup>18)</sup>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는 위와 같은 노력만이 국문학의 위기, 고전문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학과의 이름을 바꾸고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교과목화 한다고 해도, 고전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고전문학 교육의 방법과 내용 자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가 십여 년 동안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강의하면서 고전문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모색하는 과정의 한 부분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관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위기에 처한 고전문학 교육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한 사례로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18) 구본기·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 사례발표」,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06. 참조.

### <참고 문헌>

- 고은, 『入山』, 민음사, 1977.
- 고은, 『고은 시전집』, 민음사, 1993.
- 김무조, 『한국전통사상과 신라불교』, 신지서원, 1999.
- 김열규·신동욱 편,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 김영태, 『신라불교 연구』, 민족문화사, 1987.
-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대학의 국문학교육』, 국어국문학회 편, 지식산업사, 1993.
-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8.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 불교사학회 편, 『신라 미타정토사상 연구』, 민음사, 1988.
-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1.
- 이동환 역, 『삼국유사』, 장락, 1994.
- 한국고전문학회 편, 『고전문학연구』25집, 월인, 2004. 06.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1997.

## A Case Study on Education of Old Korean Folk Songs-Hyangga taught by University

Jeong Heungmo

This dissertation aims at considering the better method for the easy and effective education of old Korean folk songs taught by university. Its concrete debate is based on a subject material related with the learning situation of *WONWOANGSAENGGA*.

The text of *WONWOANGSAENGGA* contains two themes. Its signifiabile theme is to describe how Amita's religious belief has embodied the popular society of Sinla(one of three countries at the period of Three States) through a certain event. But its signified theme focuses on the representation about the painful courses of the sincere religious life and spiritual discipline. *The maid OOKMYEON go to Elysium* can be referred as a story of the theme like the text of *WONWOANGSAENGGA*.

The intent of The *ILYEON* that records an extreme discipline like denying the life of *GOANGDUK* and *OOKMYEON* is related with the period of *ILYEON*, who had lived in invasion and rule of Mongo. The suffering and despair of life which the lower classes undergo under the control of continuing wars and rules of the alien peoples had been much more miserable than ever. *ILYEON* had recorded this story, in order to give to the suffering lower classes with his contemporary times a religious hope what is called 'Nirvana after death, life after death without suffering'.

This religious attitude of *ILYEON* can be criticized as an escapism dismissing the current contradictory reality of life.

IMJONG, a poem written by KOEUN, composed on the subject material through a motif of *WONWOANGSAENGGGA*. This focuses on two different opinions approaching on the current despairing reality, after reviewing a life of a participant intelligentsia of the current reality. Also This can be utilized to compare with his life.